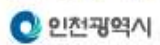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	배포일자	2021년 2월 26일(금) 총 4매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당자	• 대기정책팀장 정우영 ☎440-3501 • 담당자 김형문 ☎440-3502	
<b>사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·경기·충남, 대기질 개선 위해 ‘맞손’

- 국가균형위 주관, 「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」 공동 추진 -  
-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, 향후 5년간 588억원 투자 목표 -

- ‘그린뉴딜’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경기도·충청남도과 손을 잡고 서해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.
-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원순환시설 추진 및 1회용품 없는 도시 만들기, 2050 탄소중립에 이어 초광역권 대기질 개선에 나서는 등 친환경 자원순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있다.
- 인천시는 26일 충청도청에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, 양승조 충청남도지사,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’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에 선정된 ‘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’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

5년간 약 588억원의 예산 투자를 목표로 인천, 경기, 충남 서해안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추진한다.

-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해안 지역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, 취약계층 건강영향 조사 방안 마련 및 서해안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발굴·추진을 위한 3개 시·도의 초광역 협력이다.
- 인천, 경기, 충남지역은 항만, 산업단지, 화력발전소,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/3에 육박하고 있다.
- 3개 시·도는 지역 경계를 넘어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체계 구축과 공동 개선사업 발굴을 목표로 오늘 5월까지 3개 시·도 연구원과 함께 기획 및 연구를 진행하여 서해안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전략별 세부 사업을 발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까지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협약을 체결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“서해안과 맞닿아있는 인천, 경기, 충남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약 40%가 집중돼 있다”며 “이 많은 인구가 중국 발 미세먼지와 항만 등 국가기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다”고 언급했다.
- 이어 “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의지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이라는 더 큰 도전을,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해내야 한다”며 “화력발전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친환경·저탄소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체제로 전환하는 한편, 도시 숲 확대, 해양과 갯벌 생태계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- 그러면서 “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께 보다 나은 환경을 선사하고,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” 이라고 덧붙였다.

<붙임> 「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」

※ 관련 사진은 14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'인천시 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, 동영상은 인천시 웹하드( [only.webhard.co.kr](http://only.webhard.co.kr) )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

## 참고

## 「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」

- ❖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의 「초광역 협력프로젝트」에 선정된 「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, 경기도,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대기질 개선 체계 구축 및 공동 개선사업 추진

### □ 추진배경

- 인천, 경기, 충남 지역은 항만, 산업단지, 화력발전소, 수도권매립지 등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배출량의 1/3 육박
- 국외 유입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,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항만, 중소형 선박 등 서해안권 대기오염벨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시급

### □ 사업개요

- 사업명 : 「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」
- 참여기관 : 인천광역시, 경기도, 충청남도
-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5. 12.(5년)
- 소요예산 : 588.5억원 (기획 및 연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)

### □ 주요내용

- 대기질 통합 모니터링 및 초광역 서해안권 환경관리단 설치·운영
- 오염원, 취약지역 배출량 관리 및 취약계층 건강영향 조사관리 방안 마련
- 중소형 선박 배출기준 제도 마련 건의, 항만, 공항 등 사각지대 대기질 관리

### □ 추진계획

- 사업 기획 및 연구 : 2020. 12. ~ 2021. 5.
- 세부 사업 발굴 : 2021. 2. ~ 3.
- 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 : 2021. 1. ~ 2025. 12.